

		번호: PO-MA-002							
제 목	여고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및 태도 Perception and Attitude about Marriage and Child Birth among High School Girl Students								
저 자 및 소 속	강복수1), 정윤경2), 황태윤1), 박종서1), 이경수1) 1) 영남의대 예방의학교실, 2)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								
분 야	의료관리 [기타]	발 표 자		발 표 형 식	포스터				
<b>목적:</b> 이 연구는 앞으로 모성이 될 여고생들의 미래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적절한 출산율 유지를 위한 보건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.									
<b>방법:</b> 연구 대상자는 군 지역 여고생 214명(45%), 대도시 지역 여고생 262명(55%) 등 총 476명이었으며 2005년 3월에서 2005년 4월까지 한 달 동안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.									
<b>결과:</b> 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전체의 69.6%가 '결혼을 하겠다'로 응답하였으며, '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'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8.4%였는데 군 지역이 10.7%, 대도시 지역이 6.5%로 군 지역에서 높았다( $p<0.01$ ).									
결혼을 원하는 대상자 331명의 결혼을 원하는 이유는 '사랑하는 사람과 행복 추구'가 가장 많았으며, '경제적으로 안정을 위해서'는 군 지역(17.9%)이 대도시 지역(4.1%)에 비해 높았다. 원하는 결혼연령은 '25-29세'가 두 지역 모두에서 가장 많았으며, '24세 이하'는 군 지역에서 11.9%로 높은 반면 '30세 이상'은 대도시 지역이 13.2%로 상대적으로 높았다( $p<0.01$ ).									
결혼을 할 경우, '1남 1녀'를 원하는 경우가 두 지역 모두에서 가장 많았고, '자녀를 가지지 않겠다'고 응답한 경우도 군 지역 13.6%, 대도시 지역 8.0%였다( $p<0.05$ ). 첫아기 임신 연령은 '25-29세'가 두 지역 모두에서 가장 많았고, '30세 이상'에 첫 아기를 임신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군 지역 29.0%, 대도시 지역 39.3%였다( $p<0.05$ ).									
군 지역 여고생은 대도시 지역 여고생에 비하여 결혼을 원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, 결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도시 지역 여고생은 군 지역 여고생에 비하여 결혼을 늦게 하고 자녀 출산도 늦게 하기를 원하였고, 원하는 자녀수는 군 지역 여고생이 상대적으로 출산을 하지 않거나 적은 수의 자녀를 원했다.									
<b>결론:</b> 군 지역에서는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 부여를 중심으로, 대도시 지역에서는 건강한 모성과 건강한 자녀 출산을 중심으로 보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적절한 출산율을 유지시킴과 동시에 미래에 모성이 될 여고생들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.									